

순천만정원, 장애인에 열린 관광지 만든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합동 휠체어 타고 각종 시설 점검 눈높이 맞춰 불편사항 개선 장애인 시설 대폭 확충키로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을 장애인·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무장애 여행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직원들이 직접 장애인체험을 갖는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개선을 통해 '전국 최고의 장애인에 열린 여행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동으로 합동 장애인 체험 행사를 했다.

대부분의 국내 여행지가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 조성된 탓에 정작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반쪽짜리 여행에 그치거나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국가정원인 순천만의 격에 맞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장애인에 열린 관광지'로도 선정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가 노력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순천시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들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휠체어 등을 타고 합동 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직원들의 장애인 체험행사는 코스 설명과 코스 장애체험, 공감도론 순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직접 휠체어 등을 타고 장애인 코스와 각종 편의 시설 등을 둘러보며 불편한 시설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직원은 불규칙한 도로경사 때문에 휠체어가 도로 밖으로 갑자기 밀려나가 주변 동료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장애인 체험에 나선 한 직원은 "평소 장애인 코스 등이 잘 정비돼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장애인의 입장에서 휠체어 등을 타고 정원을 둘러보니 불편한 점이 의외로 많았다"면서 "이번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코스 등에 대해 일부 재정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체험 후 공감도론에서도 순천만 국가정원 내의 차별 없는 장애인 시설

확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순천만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장애인에)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선할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남공무원교육원 순천 유치 편 부영그룹, 250억 시설 건립 기부

전남 16개 시·군 간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부영그룹이 순천시에 통 큰 기부를 약속하면서 교육원 후보지 선정에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주)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은 고향인 순천시에 전남 공무원 교육원이 유치된다면 교육원 시설을 직접 건립한 뒤 순천시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부영이 기증을 약속한 교육원 시설 규모는 교육동과 생활관을 포함한 건축전

체면적 1만2500㎡(3780평)이며, 건축비용만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종근 회장은 평소 "교육재화는 한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전국의 110여개 학교에 기숙사와 도서관, 체육관 등을 건립해 기증했고, 해외에도 600여개의 학교를 지어주는 등 교육기부에 각별한 열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에 ROTC '제1호 후원의 집' 문열어

장학사업 등 학군단 지원

순천시 순천대학교 정문 앞에 전국 첫 대한민국 ROTC 제1호 후원의 집이 문을 열었다. (사진)

지난 11일 열린 개소식에는 박종철 광주·전남 ROTC 동우회장을 비롯한 순

천대 학군단장, 순천대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헌관식과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제1호 후원의 집은 앞으로 학군후보생의 장학사업을 비롯한 대학별 4학군단 지원, 타 지역 후원의 집 추가 개소 등에 나설 계획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 연극 보러 오세요"

20일 '진구는 게임중' 공연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연극 '진구는 게임중'을 오는 20일 오후 2시 도서관 강당에서 공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기획하고 극단 '학전'이 공연하는 어린이 무대극으로,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으로 램리서치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독일 그림스 극단의 'Flimmer Billy'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안한 '진구는 게임 중'은 게임중독인 초등학생 진구가 게임으로 인해 벌어진 실수를 계기로 반성을 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

린 이야기다. 이 연극은 간단한 소품과 분장 수정 등으로 빠른 역할 전환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어린이 관객들이 연극적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 등도 담겨 있다.

한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연중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 문화공연으로 매월 '토요일에 만나요'와 온가족이 함께하는 '기적의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가족참여형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크리스마스 선물, 1년 회원권 어때요?

순천만정원 회원권 판매... 성인 5만원·어린이 2만원

물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표를 사기 위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올해에만 1년 회원권으로 입장할 수는 전체 관람객의 10%인 51만명에 이르는

다. 연간 회원권은 순천만국가정원 동·서문 매표소에서 신청 후 5분 내로 즉석 발급된다. 신청시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하며 즉석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순천만국가정원이 2016년도 연간(1년) 회원권을 판매한다. 성인 5만원, 청소년 3만원, 어린이 2만원이며, 순천시민은 연령에 관계 없이 1만원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자연생태공원 두 곳을 관람하는 비용이 회당 4000원(통합입장권)이라는 점에서 연간 회원권 구입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특히 연간 회원권 소지자는 관광객이

흑두루미 탐조여행 사전예약제로 운영

순천시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탐방객을 위한 겨울철 특별프로그램 '흑두루미 탐조여행'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겨울철 탐조체험 프로그램인 '흑두루미 탐조여행'은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말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순천만

생물의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 교육, 전문 해설사와 동행한 흑두루미 및 겨울철새 탐조 등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천문대에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 탐조 프로그램과 달리 겨울철 제한구역인 희망농업단지 내 탐조대에서 쌍안경과 망원경을 이용해 흑두루미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기정 순천만보전과장은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은 순천만의 우수한 생태자원인 철새를 탐방객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철새의 서식지 보전 중요성 및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배우는 순천만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에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신청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www.suncheonbay.go.kr)에서 예약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보전과(061-749-608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은 사전예약 없이 현장접수 후 체험이 가능하며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으로 흑두루미 및 철새 관찰 및 방명록, 학 접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순천만 천문대에서는 '소원트리,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품은 천학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올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쪄갠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쪄갠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